

투데이 칼럼

잘 듣는 것이 말 잘하는 요령

말은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대화에서도 공감에 매우 중요하다. 대화란 하면 자기합리화 자기의견만 하는 피곤한 사람이 있다. 대화는 공감을 통해 상호 소통이 중요하고 그 대화의 효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반응"이라고하는데 모든 대화를 "나"로 전환시켜 자신의 얘기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요즘 몸이 안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안좋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끈임없이 상대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 버리는 이런식의 대화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 좋은대화는 "어디가 안좋아?"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라고 물으면 상대의 마음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다. 정신과 문턱이 높을 때 유독 사람들이 접점을 많이 찾던 이유 역시 꼭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기위해서가 아니다. 점쟁이야말로 내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 놓는 것 만으로도 이미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 중 잘못된 정보 있다고 해도 중간에 끼여 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 늘 징징거리는 사람은 정작 타

인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 자신의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면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의 말을 듣기위해 필요한 것 적당량의 침묵이다. 대화에서 내가 어떤 말을 "기억"하느냐. 말없이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가 울 때 손을 잡는게 전부였는데도 말이 "내가 이야기꾼이냐면 그건 내가 듣기 때문이고 이야기꾼은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소설이 써지지 않을 때 나는 소설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존버거(John Berger)의 말을 떠올린다. 대개 좋은 화자는 잘 듣는 사람이다. 듣고파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결국 상대도 침묵에 갇든 내 마음을 듣게 된다. 잘 듣는것이 말 잘하는 것이다. 대화의 달인들은 항상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상대의 마음을 공략하고 욕구에 맞는 말감을 준비하여 침착하게 하는 것이다. 들을 聽(청)은 耳+王 듣는 것을 임금처럼 듣고 "(十+目) 열 개의 눈으로 들어라"(十+心) 하나의마음으로 들어가" 라고 들어 볼 수 있다. 소통의 중요 요소도 공감, 관심 경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듣기로 잘 소통하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자.

사설

어느 김제 출신 시인

김제 출신 김용길(金容吉) 시인이 최근 세 번째 시집 '사랑하는 사람아'를 출간했다. 제목 '사랑하는 사람아'는 시집 본문에서 뽑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을 보아라 /외진 곳에서 더 외진 곳을 보아라 /더 낮아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더 외져서 더 외롭게 사는 사람들 /어떠하더냐 /세상에는 그렇게 낮고, 그렇게 /외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김 시인은 이에 앞서 1991년 첫 번째 시집 '그리움아 그리움아'를 냈다. 그 뒤 30여 년 만인 2020년 두 번째 시집 '슬픈 허리의 노래'를 출간했다. 띄엄띄엄 시집을 펴내면서 반 백년을 두고 꾸준히 시를 발표 한 것이다. 시인은 시집 '슬픈 허리의 노래'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팍팍한 삶을 살았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산 건 아닌데 절박한 마음에 돌덩이 하나 가슴에 얹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힘든 세월을 사는 도시민의 고달픈 삶의 비명을 <아픈 허리>를 앞세워 시어(詩語)로 노래했다. 그의 시에는 삶의 고단한 길목에서 마주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애뜻하고 진솔한 사랑과 인정이 담겨있다. 그는 마음에 담고 산 세월이 많이 후회스럽고 죄스럽다고 말한다. 사는 것이 유한하고 순간들이 소중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 깨우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겸허한 생활인이다. 그러나 때로는 시인 특유의 목소리들이 숲속의 메아리처럼 은은히 울려나온다. 그의 시는 슬대없이 난해하지 않고 명료하며, 고백체 형식으로 진솔하고 겸손하다. 김 시인은 남성고와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1975년 월간지 '현대시학'을 통해 김요섭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피스서밋 2023의 과제

최근 각국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천주평화연합(UFP)은 세계 전·현직 정상 50여 명을 포함해 70여개 국가에서 온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여한 '피스서밋 2023'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했다. '항구적 평화세계 건립을 위한 대륙 연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특히 세계적 평화운동을 펼쳐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성탄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한 총재는 "의로운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지만,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 사상전(戰),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평화리는 두 글자는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무지로 인해 지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가 되는 걸만이 미래가 있

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환경 위기, 종교·인종 갈등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이기주의'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애국주의'라는 포장 속에 자기 국가와 국민만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화합과 상생보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서밋'은 '정점'에서 있다는 의미다. 인류는 지금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활동의 정점에 서 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과감하게 국가를 넘어 대륙이 연대해야 한다. 공생과 공영, 공의가 실현된 신통일 세계를 위해 모두가 합심할 때이다. 이번 서밋이 신통일 세계를 위한 대륙 연대 출발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승 환호하는 맨시티 선수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21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첼시와의 경기를 1-0으로 승리한 후 우승을 확정,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맨시티는 전반 12분 홀리안 알바레스의 선제 결승 골로 승리해 승점 88을 기록하며 남은 경기에 상관 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필리핀 '중요 문화재' 중앙우체국에 대형 화재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중앙우체국이 전날 밤 발생한 대형 화재 여파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이 우체국에서 전날 밤 화재가 발생해 약 7시간 만에 진화했으며 소방관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우체국은 1928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필리핀 최고(最古)의 우체국으로 2차 세계대전 중 크게 손상됐으나 1946년 재건됐고 2019년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